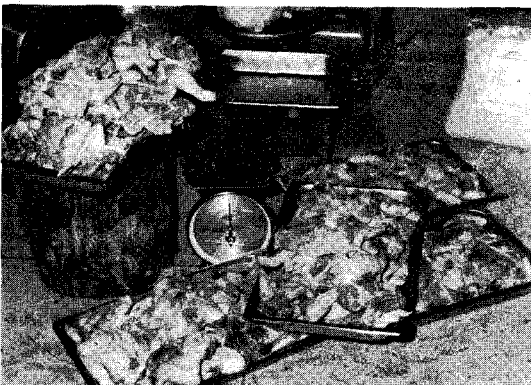


생산자는 주시하고 있다

83. 1. 31부로 간이도계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이제까지 시장에서 산 닭은 잡아 팔 수 있는 마지막 법적근거가 없어지고 이제는 일반도계장에서 도계한 닭을 팔거나 전업해야 한다. 정부는 밀도살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해 도계유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펴 나갈 것이다. 생산자는 잇달아 단속을 통해 닭상인 철시, 닭값 하락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현행 제도에 대해 무언가 변화되기를 생산자는 주시하고 있다.

연 재 흙
(본지 편집국 기자)



농수산부는 각도 축산관계관 회의에서 (82. 12. 21) 도계장 신규허가를 억제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농수산부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도계장 과다현상으로 도계장간의 물량확보를 위하여 수수료 할인 등 과다경쟁으로 계육유통 개선업무 정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정하고 각시도지사에게 도계장 신규허가시에는 수급문제, 근대화된 시설의 설치여부, 기존도계장과의 경합관계, 환경보전법에 의한 공해방지시설 및 정상운영문제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농수산부와 사전협의 후에 허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도계장의 설치 가능지역은 (건축법)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 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이며 가능한한 고시지역내에 설치하고 생산지와 고시지역내 성수기와 비수기 및 평균 소요추정량 등을 감안하여 도계장 허가가 되며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베이어시스템 시설을 갖추지 않은 도계장 허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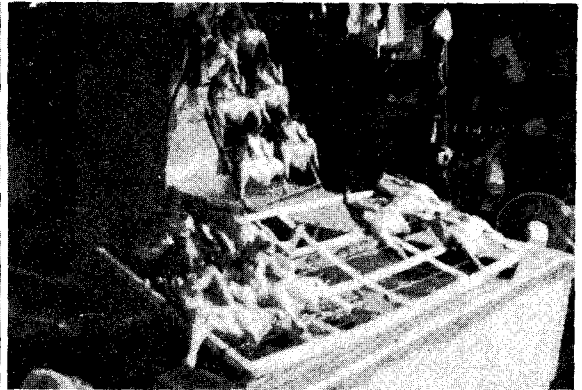
또 지난 1월 27일 각시도 수의주무자 및 가축위생시험소장 회의에서도 닭고기 유통개선업무에 대하여 특별지시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하여 각시도지사는 닭고기 유통개선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이며 특히 82년 12월 31일자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밀도살에 대한 벌칙이 대폭강화 되었으니 고시지역에 대한 밀도계 단속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지난 26일 금년 1월 31일 까지 시한부로 허가했던 간이도계장의 영업허가를 31일부로 모두 취소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시장에서 산닭을 잡아 팔 수 있는 마지막 법적근거까지 없어지고 이제는 일반도계장에서 도계한 닭을 판매하거나 전업하는가 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그간 간이도계장은 소비자들의 생닭 선호도가 높고, 일반도계장의 도계능력이 부족해 시한부로 허가했었다. 서울시는 이번에도 철저한 단



속으로 도계유통을 시행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생산자의 반응을 들어본다.

육계업자들의 대표인 본회 육계분과위원들은 2월초부터 서울시에서 밀도계 단속을 강화하는데 대해서 착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번 되풀이 되었던 계몽기간 단속, 생닭상인 철시, 생산지 닭값하락, 원상복귀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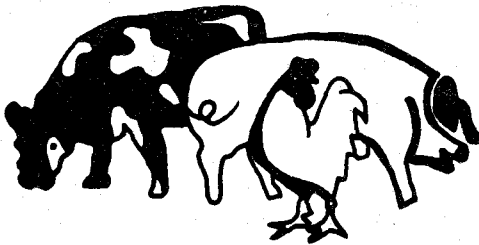
생산자들은 강력한 법적 뒷받침과 행정력을 갖고도 도계유통이 왜 안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없이 잇을만 하면 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만 피해보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 무언가 변화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생계가 받을 붙일 수 없도록 꾸준하고 계속적인 단속과 병행해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우수한 시설의 필요한 만큼의 도계시설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도계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성공 하리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76년이후 도계유통에 대해서는 본지에서 수차례 깊이 다룬 바 있으며 생산자들의 의사도 이미 분명히 표시하였기에 정부나 서울시를 생산자들은 지켜보고 있을 따름이다.

축산인의 슈퍼마켓



*양돈, 양계, 낙농,
비육 등 국내외의
우수 수의가축약품 및
수의축산기구 완비

*오랜 임상 경험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

대영축산약품상사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65-15 (수성구청 앞)

전화 : 73-2888, 73-3335 야간 : 752-7936

대표 : 수의사 이진부